

# “규제 일몰제 도입... 체감도 개선 하겠다”

■ 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잠재성장률 7% 목표 모든 걸림돌 제거  
부동산은 가격 안정·거래 활성화 초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적극 나설 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정식 출범 전부터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와의 전쟁”에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에 대한 체감도 향상 및 각종 규제가 뒤얽힌 복합규제의 해소방안 등 실천적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일몰제 등 도입으로 ‘체감도 개선’에 초점”=이 당선인은 이날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율러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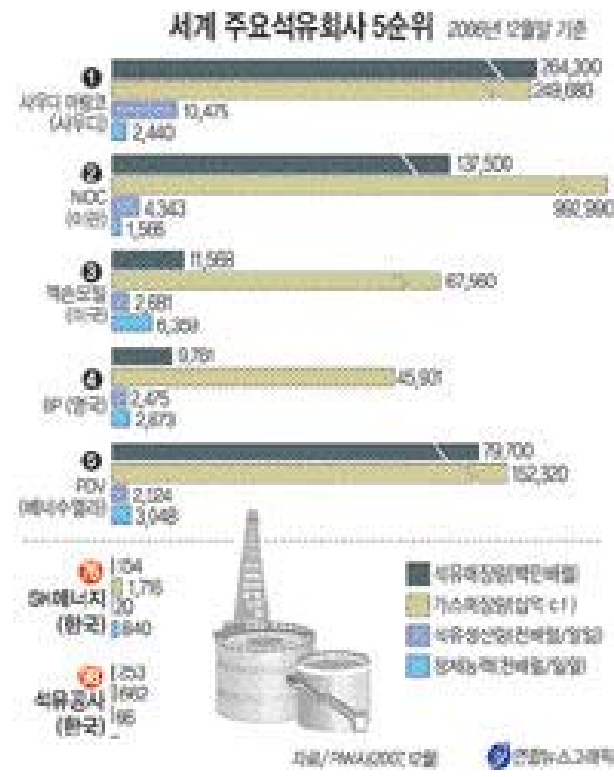
기한이 만료됐을 때 이를 존속시킬 만한 근거가 없으면 이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행정청이 법령상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따라서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7%선으로 높이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 거래는 활성화돼야”=이 당선인이 이날 회견에서 강조한 부동산정책의 키워드는 가격안정이다.  
이 당선인은 “주택 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며 “현재 가격 상승으로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선인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택거

래 침체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완화해 거래의 숨통을 더 툭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가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안정이 충분히 뒷받침된 이후에나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미분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은 혜택이 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지방이 당면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 시설 확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인 300명 우선 선발

### 내달 공항 귀빈실 이용

주요 기업인들도 내달 1일부터는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 1천명에게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실무 작업을 통해 이달 말까지 기업인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번에 기업인 1천명을 선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우선 이달 말까지 300명을 선정해 내달부터 공항 귀빈실을 자유롭게 이용할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1천명까지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성실 납세자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 300명이 추려진다. /연합뉴스



## 이동평균선 무너지ն 주가에 대해...

### “추세 꺾였다” “일시 조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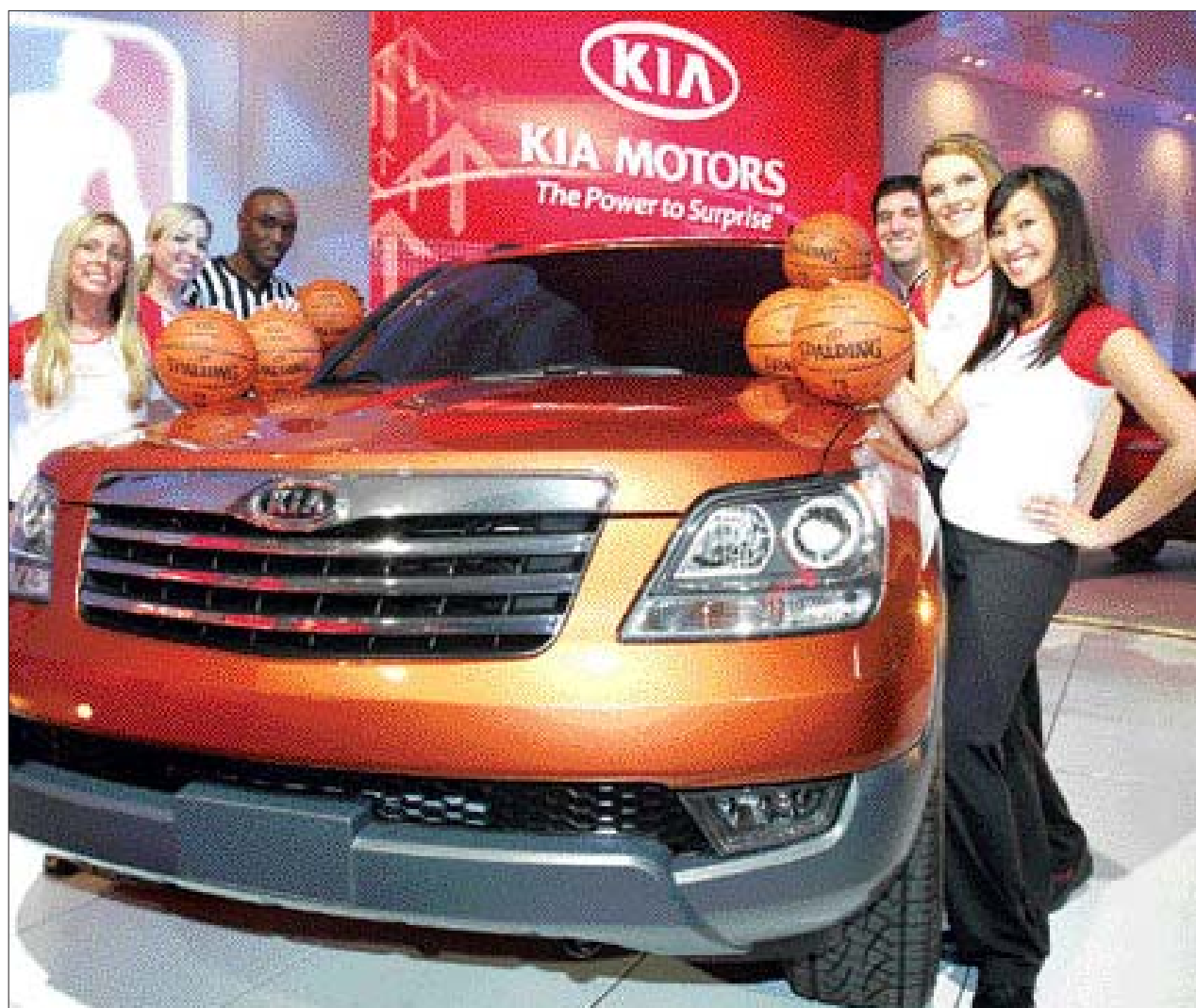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면서 ‘추세선’ 또는 ‘경기선’으로 여겨졌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등 조정 양상이 깊어지자 14일 증권업계 주변에서는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4분기 말에 조정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현재 200일 이평선이 코스피 지수 1,801선에 걸려 있는 가운데 지수는 지난 주보다 16.39포인트(0.92%) 하락한 1,765.88에 마감했다.  
◇코스피 200일 이평선 붕괴-“추세 꺾였다”=지난 주말인 11일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준대로 42.51포인트(2.33%) 하락하면서 1,782.27을 기록, 추세선으로 여겨지는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자 증시 일각에서는 2003년부터 지속된 장기 상승추세가 꺾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권시장이 5년 가까이 지속된 장기 상승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으로, 상승사이클도 끝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교보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비롯해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해온 것들이 약해지고 있는 데다 경기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승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세상승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번 조정이 일시적이며 1·4분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센터장은 “올해 1월과 2월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충격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 미국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고유가 유지,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약재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투자증권 김영의 부사장은 “1·4분기는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면서 1,700선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겠지만 2·4분기부터 상승세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신혼부부 주택’ 하반기 공급

### 건교부 세부사항 검토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통장 신설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통장 신설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 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급주택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건교부는 공급면적 80㎡(전용 6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현재 통장가입자중 신혼부부용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게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美 모터쇼의 ‘모하비’

기아자동차는 13일 ‘200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모하비(미국 수출명·보레고, Borrego)’의 북미 신차발표회를 갖고 북미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 기아 ‘모하비’ 북미시장 공략

## ‘디트로이트 모터쇼’ 신차발표회 첫선

기아차가 정통 SUV 신차 ‘모하비’를 앞세워 북미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는 13일 ‘2008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모하비(미국 수출명·보레고, Borrego)’의 북미 신차발표회를 갖고 북미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모하비’는 기아차가 2005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컨셉트카 KCD-2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오는 8월 미국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모하비’는 프레임 타입의 차체에 후

륜구동을 채택하고 3.8 V6 랩다엔진 및 기아차 최초로 4.6리터 V8 터보 엔진을 장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파워와 성능을 선보인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27일까지 이번 모터쇼에 291명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컨셉트카 KEP를 비롯해 오피러스(수출명·아반티), 로제(수출명·옵티마), 스포티지, 쏘렌토 13개 차량 및 칸타스(수출명·룬도) 절개차 등을 전시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사이버 불법금융 대거 적발

무등록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거나 대부업을 하는 등 불법 금융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어기며 사이버상에서 금융 영업을 한 1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 24개, 무등록 대부업체 13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12개, 무등록 신용카드 모집업체 6개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정부 ‘물가잡기’ 나섰다

## 국제 원자재값 급등 파급 차단 대책반 운영

연초부터 각종 물가지표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물가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 여파가 국내 각종 물가에도 본격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10월 7.5%, 11월 13.7%로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 지수 역시 2006년 12월에 비해 5.1% 올라 2004년 12월의 5.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10월 전년동기대비 3% 상승한 후 12월에는 3.6%로 경추어 한은의 증가 물가 목표인 2.5~3.5%를 넘어섰다.

이처럼 각종 물가가 치솟은 것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앙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크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물가상승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요 압력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곡물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곡물시장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지난 11일 옥수수와 콩, 밀 등 주요 곡물값은 일제히 하루 상한선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곡물 값 앙등은 식용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참가하는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15일 첫 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여윳돈, 채권형펀드로 몰린다

### 연초 주식형펀드는 둔화

새해 들어 주식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된 반면 그동안 소외됐던 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재개되고 있다.  
14일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채권형펀드는 지난 9일까지 한 주 동안 7천723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장·단기형 모두 자금 유입세를 나타냈다. 장기 채권형으로는 390억원, 단기 채권형으로는 4

천607억원, 혼합 채권형으로 2천726억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앞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던 MMF도 한 주간 설정액이 1조6천304억원 늘면서 자금 순유입세로 전환했다.  
반면 주식형펀드는 한 주 동안 2조1천980억원의 유입되며 자금 유입세를 지속하기는 했으나 유입 규모는 전주의 5조8천715억원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고객예약금과 신용융자잔고도 같은 기간 각각 800억원과 1천256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④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 회계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6	062-528-1187
동림전자(주)	경리총무/연구개발 경력사원	고졸/경력3년	2000~2200	01/17	062-952-7272
④윌이즈	발주MD(구매, 상품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1544-7775
디자인생	감각있는 맥 편집 디자이너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18	062-226-5401
이모레퍼시픽	경리/회계/미용/메이크업/교육/피부관리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1/18	062-231-1816
④빅플러스투어	여행사 사무실 OP (오피리어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8	062-654-0033
④유경하이테크	전산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8	062-956-8454
조선무역	조선무역 전담지역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8	062-653-6204
기아자동차충청대리점	전산인력,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9	062-234-0304
④동화하이테크	동화하이테크 정규직(인원담당)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0	070-7093-6322
조선대학교	[일반직/기술직(전산직)] 조선대학교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230-6202
현대카드	2008년도 현대카드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380-7610
④한길텔레콤	[정규직/영입] 기술영업직(Hi-pass)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572-6221
④호원	원가담당, 부품개발, 생산기술/해외법인 주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25	062-944-83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시중은행 거센 ‘女風’

## 과장급 승진 인사 2명중 1명 여성

은행권에 여성 인력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시한 과장급 승진 인사에서 2명중 1명은 여성이 차지했다. 또 하나은행은 133명중 61명(46%), 신한은행은 262명중 111명(43%)이 ‘여성 과장’이었다.  
국민은행은 얼마전 실시한 인사에서 과장 승진자 가운데 41%(550명중 230명)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과장 승진자중 여성 비율이 2005년 19.6%였으나 2006년 28%, 2007년 29%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부터 과장 승진까지 대략 7~10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은행권에 발을 디딘 여성 인력들의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